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활동 정책동향

(ITU-PP 활동을 중심으로)

이동철 책임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

dong@tta.or.kr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Dong-Chul Le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TTA)

E-mail : dong@tta.or.kr/dong@gmail.com

요 약

국제표준화기구의 각국의 표준화활동 정책동향 연구를 통하여 각국이 왜 의장단에 진출하여 활동하려고 하는지, 이로 인한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기술 반영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표준화의 주도적 역할을 과연 의장단 진출로 인하여 반영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이후 의장단 진출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연구위원회 회의 등을 한국에서 수차례 유치하는 등 정부의 많은 노력 끝에 국내에서 그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제기구에의 의장단에 진출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터키회의에서 ITU-T 사무총장 진출을 하였으나, 좌절되었고 최근 소련에서 개최된 3GPP에서 한국이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최근의 의장단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WTSA에서는 25명의 의장단이 진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적 이익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키워드

ITU-PP, ANSI, BSI, ISO, Standardization Gap, Other Important Issues

I. 서 론

국제표준화기구의 각국의 표준화활동 정책동향 연구를 통하여 각국이 왜 의장단에 진출하여 활동하려고 하는지, 이로 인한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기술 반영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표준화의 주도적 역할을 과연 의장단 진출로 인하여 반영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ITU-PP 소개, 선거결과, 세계정보통신표준총회(WTSA)의 변화, 자문위원회의 변화, 분담금 계획, ITU의 정책계획, 표준화 격차,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시장, 미국의 세계시장 지원 등, 각국의 기타 중요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가. PP의 기능

ITU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ITU 현장 및 협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ITU의 조직, 활동, 중요정책 및 동 현장, 협약을 재개정 하는 심의 결정기구이다. 그 조직도는 <그림2>와 같다,

ITU 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과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19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된다. 여기서 ITU의 이사국, 사무국장, 부국장, 각 부문별 국장, 전파규제위원회 등이 선출되며, 선출된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다. 여기서 당선된 사람은 4년간 ITU 정책, 재정계획을 결정하고, 회계의 승인, 현장 협약의 개정안 검토 및 채택 등의 업무를 갖는다. 또한 연구위원회의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발달에 기여한다.

나. ITU Units and ITU Financial 계획

ITU 경비 충당을 위한 회원국 및 부문회원으로 부터 받은 분담금은 매4년마다 개최되는 전권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재정계획이 수립된다.

다. History of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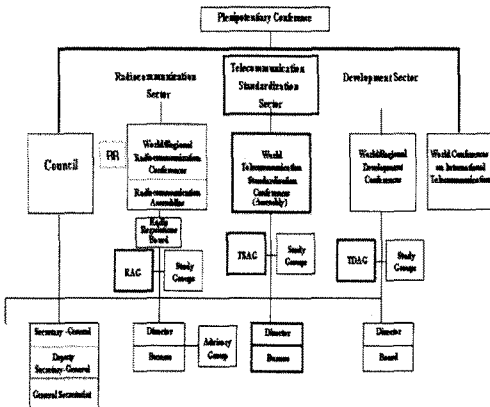
1865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20개국이 참여하여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17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17차 회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2007년 10월에 개최되었다.

PP	기간	개최지	참석국수	주요 내용
제 1차	1847. 7.2 - 10.2	미국 아들만틱시티	79	• 주요 목적: 통신시장 등 한파의 ITU기본 체제 확립 • 국제표준화위원회(ITU) 및 전리사회 설립 • 국제협약과 협상 목표 • 본부 소재지 이전 결정
제 2차	1852. 10. 3 - 12.22	이탈리아 부레노스비에르스	87	• 신 국제주파수도 결정
제 3차	1859. 10.14 - 12.21	스위스 제네바	96	• 기술발전 동향의 확충을 위해 ITU 목적 및 관련 기관의 업무 개편
제 11차	1905. 9.14 - 11.12	스위스 종트리	129	• 협정 100주년 • 무선실험의 중요(세계, 지역)으로 초당
제 11차	1913. 9.14 - 10.25	스페인 말라가-라데블리노스	146	• 국제간기술표준화 시험 (1915.1.1 발효)
제 12차	1922. 9.28 - 11.7	캐나다 나이로비	157	• 나비로비 협약 서명 (1924.1.1 발효)
제 13차	1925. 5.23 - 6.30	프랑스 니스	166	• 항공용 협약 결의 • 교원직책위원회(ICC) 조직개편안 확정
추가PP (APP)	1927. 12.7 - 12.22	스위스 제네바	174	• 조직개편(전파/통신/개발의 3개 부문) • CS/CV 작성
제 14차	1994. 9.10 - 10.14	일본 요코하	184	• APP 개최 국제 규범 신설 •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IPF) 신설 • 발전분야의 ITU 활동강화 확대
제 15차	1998. 10.12 - 11.6	미국 미니애폴리스	188	• 연간의 권리 확대 등을 위한 현상/협약의 전면 개정

<그림1>ITU PP 회의개척

III. WTSA의 새로운 변화요구

WTSA의 변화는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남아공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TSA의 새로운 변화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130년이 지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각국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기대 하고 있다.



<그림2> ITU-PP 조직도

IV. Standardization Gap

1.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표준격차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기통신표준화국과 전기통신 개발국간의 협조하여 기술적 규제사항이 포함된 규격을 만들고 모범적인 사례를 통하여 개도국간의 기술적 갭을 줄이고 있다. 이는 상호접속, 번호계획, 적합성 평가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적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변화하는 세계시장의 요구

상품-->서비스분야에 10,000억불 지원

3. 미국의 세계표준화 시장 지원 목적

상품표준적용, 표준인증시험, 기술장벽철폐

4. 국제표준질적수준

일본--> 기술적낙후, 시대에 뒤떨어짐

● WTSA, RA, WTDC with authority to establish and terminate "Other group and appoint their Chairman and Vicechairman" in the CV

❖ ToR: Such groups shall not adopt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 Impact on the ITU-I

❖ Behind intention to the ITU-T:

"a Pilot Forum(UK), Technical Specification (Japan, Canada, SSG), Two Stage Approval(Canada)"

❖ Creating a new Group to develop Technical Specification → approved by Sector Member based on some majority of those voting in the affirmative percentage

❖ Strong Debate in the future TSAG meeting

V. 결론

지난 전권위원회에서는 정무간 조약기구로 기존의 관료적 이미지 탈피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부문회원의 참여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는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주도의 추진 성격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 못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디지털 디바이드 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신규거 비스에 대한 자국 보호 규제를 수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제정 부문에 있어서 는 부담금이 전체 60억이 감소되었으며, 향후 ITU가 재정면에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활성화와 6개 공식언어의 전면적 사용으로 재정난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회기동안 약 13억원의 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5년 위이다. 끝으로 국제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활동 정책으로는 한국의 경우 많은 전문가가 활동하여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표준화 기술분야의 장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동철, 전권위원회보고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년 12월